

酪農經營者의 條件

經濟學博士 柳 濟 昌

〈建國大 畜産大 教授〉

목 차

1. 정신적 건강
 - 가. 목 표
 - 나. 신 념
 - 다. 자기암시
 - 라. 창조력
 - 마. 조직적인계획차. 두 뇌
 - 바. 결 단 력
 - 사. 인 내 력
 - 아. 성전환의 위력
 - 자. 잠재의식
2. 이론적 건강
 - 가. 낙농이론
 - 나. 경영이론
3. 기술적 건강
4. 육체적 건강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중심은 축산정책에 두어야 되며, 축산정책의 중심은 낙농발전에 두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82년도에 식량자급률이 53%이었으나 '83년도에는 50.2%로서 크게 떨어졌고 부족분을 수입하기 위해서 15억 5천 3백만 달러의 外貨를 소비했다. 금년도의 자급도 50.5%로 예상되어 필요한 식량 1천 4백 9만 4천 M/T중 옥수수 2백 86만 1천톤을 비롯한 7백 11만 6천 M/T을 수입하기 위해서 무려 16억 7천 4백만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그런데 곡류별 자급률을 보면 쌀101%, 보리 122.9%, 콩 24.5%, 옥수수 3.4%, 밀 0%로서 사료용 곡류가 대부분 부족한 현실에 있다.

즉 우리나라는 82년도에 배합사료 생산량이 442만M/T이었는데 수입사료가 무려 3,473천 M/T으로 537,086천 달러가 소비되었고 83년도는 82년 사료 생산량보다 32.4%나 증가한 585만M/T이나 생산하였다.

그 중 약 400M/T이나 수입했으니 앞으로의 사료문제는 한국축산의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배합사료이용 조성비율은 양계에 38.4%, 양돈 34.4%, 비육우 14.9%, 낙농사료12.1% 기타 0.2%로 되어 있다.

즉 양계와 양돈사료가 용가 넘는 72.8%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자급사료의 의존도가 높은 낙농분야에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매년 4~5만M/T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엄청난 두수의 육우를 수입하고 있으며, 분유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분유수입 자유화 바람이 일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부족한 축산물은 분명히 쇠고기와 우유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성장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대는 수요의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이 가장 높은 우유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즉 10%의 소득증대는 30%이상의 우유 수요증대를 가져오고 있어 우유의 증산문제는 우리나라 축산의 가장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젖소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02년 당시 농상공부의 기사로 근무하던 프랑스 사람

인 “쇼트”씨가 젖소 20두를 도입하여 시작한 이후 우역(牛疫)으로 전멸되어 오랫동안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온 우리나라 낙농업은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제 2차 축산진흥 5개년 계획이 의욕적으로 채택되었고 적극적인 낙농정책을 세워 젖소도입 중식계획과 초지조성에 정책적 배려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63년도 우리나라 젖소 사육두수는 3,538두 이었으며 연간 4,512M/T을 생산하여 1인당 연간 168gr을 소비함으로써 일년동안에 1홉도 마시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10년이 지난 '73년도에는 젖소가 52,424두로서 104,082M/T을 생산하여 연간 1인당 3.2kg을 소비하여 매일 88gr을 마셨으니 우유 1되를 가지고 20명이 나눠먹은 셈이다. 다시 10년뒤인 83년말 현재 젖소두수는 274,783두로서 728,571M/T을 생산하여 1인당 연간 18,237gr을 소비하여 하루에 1인당 50gr씩을 마시게 되어 1홉을 3.6인이 마시고 있는 현실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4,000만 국민이 매일 1홉의 우유를 마시자면 약 100만두의 젖소가 필요하게 되며 만약에 시유(市乳) 1홉과 치즈, 분유, 버터,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을 1승분만큼 먹자면 적어도 200만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

이러한 젖소의 사양두수가 확보된다면 최고의 부족문제가 해결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근 일본이 210만여두의 젖소로서 일본 최고기 수요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낙농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된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총인 6,568천ha의 산지를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 산지의 1% 밖에는 초지조성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초지조성 확대에 의해 자급사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6,568천ha중 산림법 등에 의해 산지개발이 제한받고있는 면적이 67%에 해당되는 4,426천ha나 된다는 사실이다. 하루빨리 내무부에있는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제한 조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산지를 젖소의 방목장으로 만드는 국토개발정

책과 낙농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낙농발전의 필수적인 2대요소는 낙농 경영의 합리화와 합리적인 낙농정책이라고 생각되며, 이 양자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즉, 합리적이고 적절한 낙농정책 없이는 아무리 유능한 경영자라 할지라도 낙농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오기 어려우며, 또한 아무리 합리적인 낙농정책을 수립한다고 해도 경영자의 능력이 부족하면 합리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낙농정책의 입안자와 낙농경영자는 낙농발전에 대한 공동목표의식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야만이 낙농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와같이 이 양자는 서로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정신자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믿고있다.

먼저 낙농경영자는 낙농산업의 주인의식과 더불어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낙농경영의 합리화 여부는 낙농경영자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고있기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들은 낙농경영자가 구비해야 할 조건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낙농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1. 정신적 건강

한 가정의 목표가 행복에 있다면, 가장인 경영자가 정신적 건강의 소유자일 때만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복지문화국가 건설이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온 국민의 선진된 정신적건강이 요구되는 것과 같이 유능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영자로서의 정신자세가 요구된다.

목장을 경영하는 낙농경영자는 완전한 식품인 우유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식생활개선을 통한 국민체위향상에 기여하고, 토지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아름다운 국토개발에 공헌한다는 공경제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장경영이 성스럽고 애국적인 직업이라는 긍지와 낙농기업은 어느 기업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자

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 사업계를 주름잡은 유능한 경영자를 20년간 연구하여 경영자로서 구비해야 할 필수조건을 제시한 나폴레옹 힐 著 “거부(巨富)가 되는 길”중에서 낙농경영자가 갖춰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목 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인생경영에 있어서도 명확한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정진할 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의 인생목표는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의 체력과 정신력이 세계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낙농경영을 전공하여 우리나라 낙농발전에 참여하마로서 충분한 우수공급으로 국민체위향상을 생각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교육으로 건전한 국민성과 절대적 신념을 갖도록 정신과학을 부전공하고 있다.

그러한 관계로 현재 국민정신교육 강사로서도 참여하고 있다.

첫째, 경영자가 원하는 목표액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둘째, 목표액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

셋째, 목표액이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는지 그 기일을 확정해야 한다.

넷째, 이 목표액을 실현시킬 명확한 계획을 설정하고, 곧 이를 실행에 옮길 일이다. 준비가 완전히 되었건 안되었건 좌우간 곧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다섯째, 자신이 작성한 계획서를 하루에 두 차례씩 소리내어 읽을 것. 한번은 일을 끝내고 밤에 쉴 때, 그리고 또 한번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읽어야 한다.

카베기나 에디슨이 이 방법을 몸소 실천하여 세계적인 재벌과 발명왕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믿고 목장경영에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나. 신 념

신념은 성공의 원동력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춘 마음에만 찾아드는 귀한 손님이다.

신념은 유능하고 건전한 경영자가 소유해야 할 필수조건이다.

신념은 자기의 욕망 즉 목표를 잠재의식에 주입시켜 달성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념을 마음에 지니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신념은 자기의 목표가 명확하고 건전한 때 강해진다.

「절대적 신념은 신비와 기적의 근본」이라는 진리는 필자가 실천해 본 금언(金言)이므로 경영자로서는 체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다. 자기암시(自己暗示)

자기암시란 자기의 목표를 잠재의식속에 주입시키는 매개체로서 일종의 자기최면 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의 목표를 명문화해서 아침 기상과 동시에 큰 소리로 낭독하고, 저녁 취침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되풀이 하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적극적인 신념은 행복과 번영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은 불행과 불운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자기암시가 꼭 필요한 것이다.

라. 창조력

창조력은 아이디어와 계획을 만들어 내는 원천이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새로운 아이디어와 치밀한 계획을 창조력에서 구해야 한다.

인간이 가지는 충동과 욕망은 마음속의 창조적인 재능의 도움을 받아 체계화되고 행동화되게 마련이다.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하여지고 있다.

달나라를 정복한 인공위성, 컴퓨터의 개발 등은 인간의 의지와 생각을 실현시킨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진리는 인간의 창조력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경영자는 부단히 연구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유능한 창안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것이 경제적 이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마. 조직적인 계획

거부(巨富)가 되려는 욕망을 달성하자면 우선 조직적인 계획이 앞서야 한다.

계획없는 욕망은 헛된 꿈에 불과하고 계획없는 곳에 실천이 없고 실천없는 곳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

바. 결단력

세계의 수많은 사업실패자 가운데서 2만 5천 명을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의 첫번째가 결단력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단력을 신속하게 발휘하는 습관을 기르라! 우유부단(優柔不斷)은 성공의 가장 큰 적이다! 대성(大成)하여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모두가 이 결단력을 가진 자로 조사되었다.

사. 인내력

끈기는 우리의 욕망을 돈이나 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절대 불가결한 요인이다. 그리고 끈기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굳센 의지력이다.

칠전팔기(七顛八起)의 끈기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거부로 대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에디슨이 몇만번이나 실패하고도 백열전등을 발명한 것은 끈기의 소산이다.

세계의 재벌들이 끈기로 성공했으며, 헨리 포드도 그 한 예의 인물이다.

아. 성 전환(性轉換)의 위력

성(性)에너지를 육체적인 면으로만 낭비하지 말고 하루 빨리 정신적인 면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성욕은 사람의 모든 욕망 가운데서 제일 강한 욕망이다. 이 성욕에 구사되면 인간은 예리한 상상력과 용기, 의지력과 끈기를 발휘하여 평소에 볼 수 없는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

과학적인 조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① 위대한 사업을 달성한 사람은 고도로 발달된 성본능의 소유자이며, 성전환의 방법을 체득한 사람이다.

② 큰 재산을 축적한 사람, 문학·예술·실업·기술, 그밖의 전문분야에 있어서 현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가 부인의 영향에 의하여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성에너지의 전환에는 굳센 의지력이 필요하다. 성에너지를 전환시켜 강력한 힘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은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세익스 피어, 링컨 등이 있다.

자.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무한한 지성을 가진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거부가 되려거든 잠재의식을 활용하면 된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달성시켜 주는 신비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잠재의식은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顯在意識)으로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서 무한한 지혜의 힘을 끌어내어, 그 힘에 의하여 당신의 욕망이 구체적인 재산으로 바뀌도록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잠재의식을 잘 이용함으로써 구체적인 방안이 발견되고 당신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의지의 힘에 의하여 무한한 지성을 끌어내는 매체이다.

재벌이 되겠다는 꿈, 얼마의 재산을 꼭 모으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계속하여 잠재의식 속에 주입시키면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할 방안이 나오게 되며, 실천으로 옮기게 된다.

마음속에 번뜩이는 계시(啓示)나 착상(着想)은 잠재의식이 그 동안의 불타는 욕망에 대한 해답으로 주는 것이다.

노크하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한 것은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잠재의식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본체인 것이다.

건전한 목표+절대적 신념+자기암시+지성

의 노력=만사형통의 공식이 성립된다.

잠재의식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 낙농경영자가 꿈꾸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목장은 충분히 달성해 줄수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차. 두 뇌

인간의 두뇌는 약 150억개의 대뇌 피질세포로 조직된 가장 정확한 컴퓨터이다.

두뇌를 활용하면 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며, 인간의 본부인 두뇌를 이해하고 방법을 강구하면 모든 해답을 줄 것이다.

이상에 열거한 열가지의 정신자세는 유능한 경영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대성하기 바랄 뿐이다.

그 외에도 낙농경영자가 지녀야 할 조건으로는 젖소를 자식같이 사랑할 줄 아는 풍부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나무도 애국자가 심은 것은 잘 자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성이 가득 들어갔기에 생명력이 왕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낙농경영자는 애국자이어야 한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젖소를 기를 때 젖소는 유전적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 포기의 꽃을 가꿀 때에도 비료만 준다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고 정성어린 마음으로 어루만져 줄 때 싱싱하고 향기로운 꽃송이가 피어 오르는 것이다.

또한 젖소들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

유능한 독립가(篤林家)는 숲속에서 나무들과 대화할 줄 알며, 현명한 농부들은 논밭에서 작물들과 오손도손 속삭일 줄 안다.

젖소들은 덩치가 클지라도 매우 민감한 동물이다. 목장주인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음성애 안심할 줄 알고, 신경질적인 목소리와 매서운 눈초리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젖소의 심리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착유시간에 울려퍼지는 감미롭고도 경쾌한 음악소리가 젖소의 비유생리(泌乳生理)에 효과적이라는 상식은 물론, 옥수수 밭에 부드러운 음악소리가 반당수확량을 증대시킨다는 지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낙농경영자는 목부나 주위 사

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격자이어야 하며, 새벽 4시 정각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근면성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기상과 동시에 그 날의 계획을 세우고 정신통일하는 진지한 태도로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된다.

2. 이론적 건강

낙농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이론적 배경은 축산 즉 낙농생산에 필요한 전문적 이론과 경영, 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 이론을 겸비해야 한다.

가. 낙농이론

우선 낙농산물의 직접 생산수단인 젖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젖소의 생리, 사료, 영양, 육종번식, 사양관리, 질병위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터득해야되고, 목초나 사료작물의 비배관리, 이용, 저장 등 모든 이론이 요구된다.

목장 경영자가 이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없다면 경영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비합리적인 경영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각종 낙농강습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전문서적 구입에 관심을 갖고 허약한 이론을 살찌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경영이론

1) 낙농경영의 목표설정

경영자는 낙농목장이 우유생산 공급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목장을 유지존속 내지는 성장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소득이나 적정이윤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적정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조수익을 설정하고, 이 목표조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당 목표유량과 독우 생산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목표유지방율, 바람직한 분반간격, 두당경영비의 허용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적정이윤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도 생산비의 허용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낙농조수익의 구성요소는 우유생산액, 독우판매액(또는 평가액), 육성우판매액(육성

우평가액), 기타 수익으로 되며, 주된 조수익 증대방안은 첫째로 두당 유량증대방안, 둘째로 젖소 경영규모의 확대방안으로 집약될 수 있다.

낙농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우군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젖소는 주생산물이 우유인 만큼 젖소의 경영 가치는 유량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용절감에 있어서는 낙농경영비중 사료비의 비율이 50~60% 수준이므로 사료비절약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낙농경영자는 가능한한 염가로 생산할 수 있는 조사료 자급도를 높이며, 농후사료에 있어서도 영양단위(DCP, TDN)당 염가 또는 적정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사료급여에 있어서는 사양표준에 입각하여 우유생산, 임신, 유지사료를 개체별로 정확히 기록계산하에 적정량을 급여함으로써 생산성향상과 동시에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영계획 수립

적정목표 이익달성을 위한 제반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1) 자본조달계획과 자본운용계획, (2) 생산계획 - 우유생산계획, 독우생산계획, 조사료생산계획, (3) 비용계획 - 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치료비 등.

3) 합리적인 경영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진행하면서 모든 경영내용을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소정의 양식으로 정확히 기록 정리한다.

젖소의 개체별 우유생산량을 비롯한 모든 사항과 전체적인 거래상황을 기록함으로써 연말의 결산은 물론이고, 경영성과분석을 위한 자료가 된다.

4) 낙농경영분석

경영기록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당회계년도의 경영진단과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평가하며, 차기 경영개선을 위한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1) 낙농조수익 - 낙농경영비 = 낙농소득

(2) 낙농조수익 - 낙농생산비 = 낙농이윤

(3) 소득률 = $\frac{\text{소득}}{\text{조수익}} \times 100$

(4) 우유kg당 생산비 = $\frac{\text{우유생산에 부담된 생산비}}{\text{총 유량}}$

(5) 생산비 비목별 요인분석

(6) 경영목표설정치와 결과의 비교분석

3. 기술적 건강

실제로 낙농을 경영하자면 이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젖소의 사양관리기술, 착유기술, 치료기술, 조사료의 비배관리기술 등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술습득이 없이는 낙농경영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목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목부들에게 기술적인 문제를 맡기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휘·통제하기 위해서도 경영자 자신이 올바른 기술을 알고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동일한 능력을 가진 젖소라 할지라도 송아지 육성에서부터 착유에 이르기까지 기술수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유량의 차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4. 육체적 건강

유능한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유가 건강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 자신도 60두의 착유우를 혼자 관리하면서 매일 10홉의 우유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매일 6홉의 우유를 주식으로 하는 일본의 두 목장경영자와 생활한 경험이 있는데 그들 모두 96세 이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다.

경영자의 건강이 있어야 젖소의 건강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젖소들은 주인의 푸짐한 사랑과 관심속에서만 건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